



미술과
심리학이라는
도구로 펼친 겹겹의
뇌주름,
뇌는 네가 그림에
숨긴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고 있다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 넌 지각심리학자 지상현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먼발치서 보아도 가슴 먹먹한 사랑의 감정, 전율을 부르는 아름다움의 이유 같은 것 말이다. 한 소설가는 말해 보려 하나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을 문장 속에 담는다고도 했다. 미묘하기 짝이 없는 느낌, 그것의 작동은 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폼 나는 연서를 쓰자는 것은 아니다. 지상현 교수의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신경미학'이란 신斷이론으로 화가들의 그림 속에 깃든 아름다움의 이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 명쾌히 짚어낸다. 미술심리학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을 설명한 전작 《시각예술과 디자인의 심리학》에 이어진 '신경미학 심층 분석판'이라 할 만하다.

"국내에서 미술심리학 분야를 처음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의 유용성을 널리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지요. 전작 《시각예술과 디자인의 심리학》은 미술심리학 개론서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책을 집필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경미학으로 미술, 과학, 인간의 감성을 보는 인식을 넓혀본 것이 이번 책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입니다."

미술심리학의 유용성을 널리 전하겠다는 그의 의지만큼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다. 신경미학이란 낯선 이론이 생산한 연구물이라 이해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뇌의 기능을 통해 다 빈치, 피카소, 샤갈, 고희, 김홍도 등 유명화가의 명화 속에 담긴 아름다움의 비밀을 밝혀내는 책에서 눈을 떼기란 쉽지 않다.

모나리자의 미소의 비밀은 정서가 다른 좌뇌와 우뇌의 특수성으로, 청색을 빼어나게 사용한 샤갈의 비밀은 시각 통로에 있는 뉴런들의 측면억제라는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현대 지각심리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고희의 교묘한 소실점 배치는 전두시각장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눈운동으로 설명된다. 아름다움에도 패턴이 있다는 사실, 나아가 뇌의 갖은 부위들이 아름다움을 주관한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분명한 한편, 상당한 흥미를 제공한다.

“아름다움에는 절대적 상대적 측면이 있습니다. 밸런스 정우성과 저를 놓고 볼 때 백 사람이면 백 정우성이 낫다고 하겠지요. 아름다움의 절대적 측면은 이것입니다. 정우성 보다는 지상천이 낮더라는 상대적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서와 경험 등 움직여 떠다니는 상대적 측면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절대적 측면이라면 분명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남은 것이라면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뇌기능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신경미학은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뇌기능을 통해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신경미학 연구의 정점에는 그 역으로 ‘어떤 작용이 아름다움을 줄 것인가’를 밝힐 수 있겠지만, 아름다움과 뇌기능 간의 관계를 찾는 것만으로도 현재로서는 큰 성과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듯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에 소개된 연구물은 세계적으로도 현재진행형의 것들이다. 버클리대학에서 신경미학학회가 설립된 것은 2002년. 신경미학에 관한 가장 최근 연구물 가운데 타이일러의 〈What makes Mona Lisa smile?〉은 모나리자 미소의 비밀이 ‘노이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이즈를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의 인상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를 정독했다면, “오호, 그것 역시!”하며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시각디자인과 미학을 전공했던 그가 지각심리학에 매진, 신경미학이란 연구를 시작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그 하나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과 자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때문이었다. 미학이 미술에 대한 심층학습이 될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으로도 그가 느낀 지적 허기는 충족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이 엉뚱하게도 미학이 아닌 심리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디자이너로 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지각심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한편 디자이너 자본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던 때 빼기번쩍한 벤츠를 몰던 한 동료가 말하더군요. 좋은 차를 타봐야 좋은 것들을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매끈한 디자인을 왜 못 건지겠습니까. 자

본에 종속되지 않는 디자인, 인간 마음의 근원을 건드리는 디자인, 그런 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답 역시 심리학이 갖고 있었지요.”

혹자는 “느닷없이 웬 심리학이냐”며 탄축을 걸기도 했다. “미술이든 디자인이든 사람의 마음에 기대고자 하는 것인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그들의 단견을 일축했다. 그의 그런 강단이 없었다면, 뇌가 밝힌 아름다움의 비밀을 우리는 오랜 뒤 만나는 불행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신경미학 연구는 국내에서 맥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다. 신경미학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갖고도 싶지만, 연구자와 연구물이 적은 분야에 큰 지원을 바란다는 건 국내 사정으로서 아직은 무리란다. 신경미학학회의 최신 연구를 재빨리 수집해 아이디어를 모형화하는 리뷰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들보다 더 나은 연구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자신한다.

한편 신경미학이 절대적 아름다움의 비밀을 밝혀냈지만, 성과를 뒤로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부류도 적지 않다. “신경미학의 도움이 없어도 예술은 미적가치를 인정받으며 이어왔다”는 것이 대표적인 입장이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버클리대학에서 신경미학회라는 흥미로운 학회가 생겼다고 소개하고서는 기사 마지막에 “So what?(그래서 어쨌다는 거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림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곧 그림 감상의 논의를 중요하게 한다는 것은 신경미학 최소한의 가치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이유로 미술을 포기하는 미술학도들에게 신경미학은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감각이란 것의 실체가 있거나 하겠습니까. 아름다움에 관한 특정 기법들을 이해하고 훈련한다면 더 나은 작품에 접근할 수 있지요. 산업으로 돌아오면 디자인 부문에 특히 유용한 것이 신경미학입니다. 서체나 심벌마크, 패키지디자인 등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개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분야에 신경미학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 아름다움을 말한다》를 통해 그는 이성이 감성에 복무할 수 있다는 논리의 확장을 알렸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감성적 욕망이 확인시킨 뇌기능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일은 그야말로 흥미롭다. “내 뇌의 얼굴 전담부위가 네 얼굴을 주목케 하고, 수용기 틈에 배위자가 정확히 들어맞아 사랑기제의 작동이 활발해지고 있어”라고 건조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의 특별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

취재 박용두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